

UP-AND-COMING ARTIST



오연진 Oh Yeonjin

1993년 태어났다. 서울대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하고 한예종에서 조형예술과 전문사를 취득했다. 개인전 〈The Very Eye of Night〉(2020, 송은아트큐브), 〈Lace〉(2019, 전시공간)를 열고, 〈리브 포에버〉(2019, 하이트컬렉션), 〈두산아트랩 2021〉(2021, 두산갤러리)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That Has Ever Seen〉(2020, 킵인터치)을 기획했다. 2020년부터 루이즈 더 우먼의 운영총괄로 활동하며 여성 예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한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 시스템이란 구성원을 억압하는 고정된 기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갱신을 담보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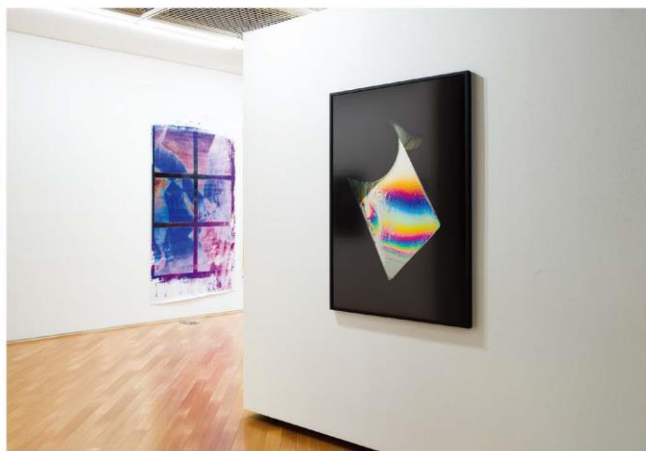
움직임을 압축한 이미지의 잠재력

오연진은 암실에서 노광 시간을 초 단위로 설정하거나, 이미지 매핑 알고리즘으로 3차원 구체를 2차원으로 변형하는 등 명확한 조건에서 무한히 변화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Sphere Map System》(2018), 〈As If〉(2018) 연작처럼 ‘도식적인 조건들을 거쳐 변화하는 결과값’에 주목한 작품과 다르게, 작가는 근작에서 각 조건에 의해 형성된 ‘변수’와 ‘움직임’, ‘관계성’에 전념한다. 전술한 단어들은 일견 수사적 표현처럼 보이나, 실제 작업 과정의 요소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서술하는 말이다. 노광, 약품 처리, 수세, 건조로 끝나는 일반적인 암실 작업과 달리, 그는 단계를

추가해 원인과 결과 사이의 연결지점을 나눈다. 작가는 한 장의 인화지에 같은 형상을 반복 노광하거나 다색 조명으로 톤을 다채롭게 했던 지난 실험에 더해, ‘도식적인 설정의 포화에서 오는 통제의 한계’를 체감하고 작품에 우연의 효과를 허락했다. 가령 CMY 필터로 캔버스에 빛을 통과시켜 인화지에 보색 이미지를 현상하는 과정에서, 그는 캔버스에 칠해진 물감의 색채를 이용해 인화된 사진의 색채에 영향을 주고 이미지를 솔라리제이션(solarization)해 추가적인 색채의 변수를 더하기도 한다.

작가는 과거의 광학 실험과 발견을 작품 안으로 끌어와 작업 방식과 개념을

증폭시켜왔다. 그는 초기 사진이 글자를 인쇄하기도, 그림을 복제하기도, 연속사진으로 대상을 영화처럼 구현하기도 한 점에 흥미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나의 매체가 여러 장르의 성격을 흡수해 개별 장르간의 접점을 가시화 한 점은 작가의 작품이 ‘회화적’ 사진이자 네거티브 이미지로 해석된다는 것과는 연결된다. 오연진은 〈The Very Eye of Night〉에서, 19세기 벨기에 물리학자 조셉 플라토(Joseph Plateau)가 발명한 장치 ‘아노토스코프’와 마야 데렌(Maya Deren)의 댄스 필름을 참고하여 그가 탐구해왔던 ‘조건화’와 관계성, 그리고 원형적인 사진매체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그중 ‘실험영화의



왼쪽 위 <Account #1~11>
Unique chromogenic print 각 210×127cm 2019
아래 <Lamella #1>(사진 오른쪽)
Inkjet print 120×84cm 2020
오른쪽 <OBJECT-THROUGH>
Unique gelatin silver print 61×50.8cm 2020
왼쪽 페이지
<Anorthoscope>연작(사진 왼쪽)
캔버스에 아크릴 각 194×130cm 2020
<Anorthoscope>연작(사진 오른쪽)
Unique chromogenic print 2020

어머니로 불리는 데렌의 마지막 작품 <밤의 눈 (The Very Eye of Night)>(1958)은 안무가의 움직임과 카메라워크로 재구성한 영상이다. 작가는 '네거티브화'된 데렌의 작품이 "움직임을 변형시킨 움직임이라는 네거티브를 작품에 투영"했음을 인지하고 그 이미지 일부를 <Anorthoscope>(2020) 연작에 사용했다. 또 다른 작품 <Lamella #1~6>(2020, 촬영 김익현)는 비눗방울을 둘러싼 근대의 역사적 해석을 재현하는 동시에, 곧 사라지는 일시적인 필름이자 재생되지 않는 막에서 시간이라는 변수를 살피는 시선을 담았다.

작가가 천착해온 조건 사이의 관계성,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변수는 이제 '무빙 이미지'와 관련한 사고실험으로 나아간다. 그는 움직임과 흔들림 사이의 멈춤을 '무빙'으로 보고 시간에 따른 변화, '정지와 운동'이라는 조건으로 이미지를 바꾸어간다. 이는 이미지가 다변적이며 변형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어렵게 현상된 무용수의 몸, 곧 터질 것 같은 막은 동적인 흐름은 압축된 이미지로, 종결되지 않고 다른 심상을 파생시킨다. 이렇게 오연진의 '무빙하지 않는 무빙 이미지'는, 모델이 긴 시간 카메라 앞에서 있어야 했던 과거 초상사진에 녹아든 정지된 흔들림을 묘사하는 말처럼 읽히기도 한다. 또한 전시 <리뷰렛>(2020, 갤러리 175)에서

그가 선보인, 수조에 물과 슬라임을 필름처럼 사용해 유동하는 형상을 찍어낸 작품들은 '무빙'했던, 또다시 운동할 수 있는 힘을 내재한다. 따라서 작가가 말하는 "무빙, 또는 무빙하지 않음"은 실제로 움직이는 영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의 사고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이다.

스스로의 작업이 'A에서 B로의 전환'이 아니라 'A에서 A'로 이동해왔다고 말한 작가는 미술 안팎의 생활에서도 실험자이자 감독자로서 점차 바뀌어가는 사회의 면면을 주시한다. 얼어붙은 듯 견고한 표면에서도 새로운 관계성을 촉발하는 그의 행동은 작품만큼이나 큰 가능성을 보여준다. **조현아** 기자